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 시작

- 발사대 기립 후 추진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연결 등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오늘 오전 7시 20분에 누리호의 이송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했다.
 -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이송될 예정이다.
-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되며,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 과정이나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내일 오후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누리호에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발사 윈도우,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리호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	책임자	과 장	김기석 (044-202-4640)
		담당자	서기관	김미미 (044-202-4644)